

# 디지털 시대 도서관 콘텐츠 문제 : 왜 다시 책을 말하고 있는가

이 용 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 <목 차>

1.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2. 디지털 시대 도서관 장서의 중요성
3. 도서관 장서의 역할
4. 디지털 시대 도서관의 역할

## 1.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지난 6월 2일, 서울국제도서전이 한창인 COEX 마당에서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 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시민운동이 출범식을 가졌다. 이 운동에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를 포함해서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출판계의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8개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운동은 문화개혁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가 2000년 중반부터 시작했던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캠페인’의 확대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하반기 출범한 문화연대는 우리 사회의 문화부문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감시, 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부문의 대

## 2 2001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

표적 시민단체이다. 이 문화연대 내에는 도서관출판위원회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지식자원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출판과 도서관 부문의 개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서관 자료구입비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결국 출판이라고 하는 지식생산 구조가 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재원 모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출판물 구입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 방안이라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6월 23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방안 모색’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한 독서와 도서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서관기금>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2001년 들어와서 “지난 해 문화관광부가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도서정가제 문제로 우리나라 출판계 전반이 큰 혼란과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아직도 도서정가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나라 출판산업, 나아가 지식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친 사회적 합의와 대안창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결국 21세기 우리나라 지식기반의 건실한 확충, 즉 지식정보시대의 핵심적 자원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와 민족, 나아가 개인의 지식자원 빈곤을 초래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출판과 지식기반 전반에 걸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출판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며 총체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대안을 만들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제 책, 즉 출판문화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는 도서관 제도의 안정적 확보와 도서관 운영의 안정화, 내실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도서관의 콘텐츠 예산증액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시민들의 주인됨을 확립하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식사회로 만들어 감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본격적인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출범식 때 국민운동 홍보자료에서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책을 멀리하고 책을 읽지 않고 책읽기를 우습게 아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위험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기본이 허약한 사회, 경박하고 천박한 사회, 현대판 우중(愚衆)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책을 읽고자 해도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모자라고 몇 안 되는 도서관에조차 책을 비롯한 지식 콘텐츠가 너무도 빈약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높이고 정보와 지식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국민 문화복지 시설이며 창조를 위한 문화환경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시대의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입니다. 50년이 넘도록 우리는 "도서관 없는 나라, 책 없는 도서관"이라는 문화빈곤국의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을 방치해 왔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책 읽지 않는 사회를 책 읽는 사회로 바꾸려는 국민의 자발적 캠페인이라는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이제 도서관의 콘텐츠는 도서관이나 출판의 영역을 넘어 시민사회의 핵심적 관심과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 2. 디지털 시대 도서관 장서의 중요성

장서는 도서관의 핵심적 능력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은 시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시설보다는 역시 도서관이 어떤 내용(콘텐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개개인이 정보나 자료를 직접 입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도서관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때에도 여전히 시설(독서실)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지만 그래도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시민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이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장서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출판연구소가 1999년 조사한 국민들의 독서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해 본 비율이 19.9%로 1995년 13.2%보다 6.7%나 증가했다. 이들이 도서관 이용에서 만족한 이유 중 첫 번째가 '책의 종류가 많다'(24.8%)였다. 반면 불만족한 이유의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장서량 부족'(25.6%), '신간 부족'(10.7%)이라고 답해 역시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서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도서관에서도 같다. 학교도서관

#### 4 2001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

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응답자의 46.7%에 이르는데 이 학생들이 그 이유로 든 것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읽을 만한 책이 없다'(40.3%)였다. 그래서 성인들은 정부가 공공 도서관/이동도서관 증설 및 활성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꼽았다(17.8%). 여기에 아직도 여전히 도서대여점이 도서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도서관의 확충과 그 장사능력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오는데 정작 우리 도서관들의 장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 내용도 뭔가 사람들과 어긋나 있기도 하다.

거기다 나아가 디지털 시대 사람들은 도서관에 굳이 가지 않아도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다 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인식에 젖어들고 있다. 또한 책도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eBook) 시대가 되어 개개인도 수 천 권의 책을 단말기에 담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시대에 이제 고리타분한 도서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 시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더욱 도서관계에서도 소장나 접근이나 하는 논쟁 속에서 소장보다는 접근이 도서관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실제 국가의 도서관 정책이나 일부 도서관들의 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생각해 볼 때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의 콘텐츠가 크게 다양해지고 풍부해진 것은 사실이며 접근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예전보다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접근이라는 것은 소장의 확대이며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개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으며, 도서관들도 물리적 장서가 없이 접근 능력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문제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이유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독서'의 문제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는 지식정보사회라고도 한다. 이는 이제 지식과 정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자원이 된 사회가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개개인의 삶의 자원으로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정부나 사회는 개개인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지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이미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학교를 넘어 평생동안 학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경우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를 강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이미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좋은 책을 공공도서관에 대량으로 비치해 두고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도록 했고 그 결실이 이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지식국가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첨단 미디어 산업의 급격한 발달에도 불구하고 경쟁사회에 필요한 지식획득을 위해 책을 읽는 인구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도보(연합뉴스 2000.6.10.)도 있다. 이러한 독서인구의 증가는 대체로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즉 최근 5년간 도서관을 이용한 인구는 5배(570만명→1,970만), 대출된 책은 2배 이상(1,000만권→2,470만권)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수준 향상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공공도서관들도 종합적인 네트워크 개발을 통해 이를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21세기에든 여전히, 아니 이전 시대보다 더욱 지식과 정보의 획득과 활용능력을 강화해 주는 방식으로의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인 도서관의 장서능력 확대 또한 매우 중요한 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디지털 자료를 ‘읽고 보는 행위’도 크게 보아 독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대체로 디지털 자료들은 그 속성상 문자 중심이 아니라 그림과 영상, 음향 등 멀티미디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적 성격의 매체는 진실한 독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영상언어는 책을 읽는 행위에 비해 빠르고 비결합적인 동시에 비논리적이라고 한다. 즉 텔레비전은 즉각적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자율적이고 논리적 생각을 억제하고 단순화하게 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김재운 탐라대학교 교수가 제10회 한국출판학회 정기학술대회(2001.5.19.)에서 발표한 논문 ‘매체환경의 변화와 독서의 역할’에 의하면 이제 인터넷이 텔레비전,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등의 매체를 제치고 책이 지니고 있는 정보전달 매체의 지위를 가장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 6 2001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

평가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미지 중심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과연 우리 사회의 주류적이고 핵심적 매체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가 대학생들에게 6.15공동선언에 대해 물었더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선언의 내용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서 “온통 이미지뿐이야, 이미지. 다들 어떤 허상만을 쫓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한 말에서도 현재의 우리의 현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말』 2001년 7월호 116쪽). 이미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끄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최근 미국인들의 종이책 독서량과 책 판매량도 증가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1년에 한 권 이상 독서하는 사람들이 1990년 81%에서 84%로 증가했다고 한다(동아일보 2000.9.20.). 또한 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너무 이른 나이에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그냥 인정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보다 진지한 논의와 실제적인 조사나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주류 매체를 선택하고 이를 통한 진정한 지식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이러한 노력의 핵심에 있는 도서관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금 이러한 노력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도서관에 좋은 장서를 많이 늘리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도 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 3. 도서관 장서의 역할

우선 도서관 장서는 우리 사회 국민들의 독서활동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에서 80세 이상의 수녀원 노 수녀들을 대상으로 치매연구를 한 결과 젊어서 ‘단순 문장’만 쓰곤 하던 수녀들보다는 ‘복잡 문장’을 쓰고 많은 생각을 문장에 담아낼 줄 알았던 수녀들이 치매에 훨씬 덜 걸린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데는 역시 책 이상의 매체가 없다고 한다. 노명완 교수는 책 읽기는 더 나아가 사고, 학습, 지도력과 인격이라는 네 가지 심리적 속성은 모든 사람의 꿈이요 소망인데 독서야말로 이러한 네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독서, 사고·학습·인격·지도력의 핵심’. 『출판문화』 2001년 5월호). 또한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사유반경은, 염소의 끈처럼 그가 읽어낸 책의 높이와 걸맞는다고

하기도 한다. 사람이 자기성실로 자기존엄을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지렛대가 바로 책 읽기라는 독서행위이다.(유경환, 염소의 끈, 책과 인생 2001년5월호). 따라서 도서관들은 좋은 책을 충분히 갖추고 국민들의 독서를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이어온, 그리고 이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단순한 양적인 문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은 장서를 갖추는 것은 도서관의 책무이다.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주최한 첫 번째 국민토론회 ‘도서관 장서, 이대로 좋은가’에서 김영기 씨가 지적한 대로 우리 공공도서관 장서 내용이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왜곡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적 개선노력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장서는 또한 문화산업의 핵심인 출판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출판산업은 그 자체가 문화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 산업적 경쟁력은 국가의 총체적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 사회의 전체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토대산업이기도 하다. 즉, 지식생산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출판산업은 우리 사회의 지식 생산능력, 언어 시장, 인구 규모 등 주요한 세 가지 경쟁력을 좌우하는 외적요인에서 모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식생산의 결과물로서의 양질의, 그리고 다양한 도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 유통될 수 있고, 또 역으로 이 같은 도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창조적 지식생산 능력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 과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수적 확충과 콘텐츠 확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도서관들이 장서능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꾸준히 좋은 출판 콘텐츠를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출판이 적극적으로 좋은 출판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언어 시장이나 인구 규모가 작은 사회에서는 역시 도서관이 출판 콘텐츠의 확실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문 학술서적은 권당 판매 부수가 연간 300부가 채 되지 않아 출판업계도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김언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도서관에서 1,000권만 구입해 준다면 우리 출판사들은 어떤 책이든지 정말로 좋은 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KBS 보도 중). 김정란 씨는 상업적 이득과 상관없이 출혈 출판을 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양서들을 선정해서 일정량 이상을 구입해서

## 8 2001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

공공도서관에 배분해주는 시스템만 꾸준히 작동되어도 출판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란, 출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판문화』 1999년 10월호). 도서관이 장서 확충을 통해 창조적 지식의 지속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도서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경쟁력 강화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 도서관들도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과연 우리 도서관들은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안모색,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장서는 국민들의 문화복지의 적극적 확보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도정 일 문화연대 대표는 “도서관은 국민 누구나 지식과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며, 지식 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 지식생산능력 자체를 높이는 기반 시설이며 이러한 역할은 결국 장서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도서관이 모자라고 책이 없다는 것은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국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창조적 역량을 키울 조건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빈곤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무상 기초교육이 확대되고 인터넷과 같은 수단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인격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체는 이러한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는 일단 그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무한한 지식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단을 가지기도 어렵거니와 이를 통해 지식자원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오히려 지식의 대중화 시대라고 하는 현재에 국가와 사람들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식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규 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시하는 성인교육에서도 사교육과 같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세계일보 2001.5.16.)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가진 책의 충실한 확보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유럽 선진국

들이 여전히 도서관을 통한 책의 확보와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책이 가진 가능성에 주목한 때문이고 실제 책은 독서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 지식정보시대의 핵심적이고 사회적 가능성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소장나 접근이나 하는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과연 도서관에 책이 필요한가, 정보화 도구가 필요한가 하는 선택의 귀로에 선 것은 아닌가 한다. 이미 인터넷 시대에 무슨 책이 필요하나 하는 인식도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고 국민들도 책을 고리타분한 매체로 생각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책을 고집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확한 이념적 바탕과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로 판단되고 기능하는 사회에서 그래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저렴한 수단이라는 도서관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돈이 없어도 필요한 지식과 정보, 자료를 도서관을 통해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창조성과 사회와 개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도서관에서 책이 필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저작권 문제이다. 물론 앞으로 순수한 디지털 저작물이 더 많이 생산되겠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온 책의 가치는 여전히 무한하기 때문에 이의 보존,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작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책과 자료를 디지털화하면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최근 저작권의 강화로 인해 실제 이를 이용하는데에는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도서관이 자관의 디지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원자료를 소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관이 물리적인 책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디지털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결국 자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늘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도서관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도서관이 상실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독서와 출판의 핵심 기반이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중대한 사회적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도서관은 디지털 능

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물리적인 형태의 종이책과 자료를 같은 비중으로 확보하고 늘려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디지털 자료가 가지는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의미도 있다.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보존의 역할과 가치도 새삼 재인식되어야 한다. 늘 접근에 의존하는 디지털 자료의 경우 그 생산과 유통이 늘 불안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가치의 인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정보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수없이 많은 자원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검색과 분석, 사실확인 등과 같은 일에 모든 사람들이 매달려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책은 그런 점에서 이미 활용 이전 생산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가치있는 것들이 생산된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점들에서 디지털 시대에도 분명 사회적 지식을 담아내는 책의 중요성과 가치는 유효할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은 이러한 책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 4. 디지털 시대 도서관의 역할

앞에서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장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 사회는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서관도 그런 점에서 고리타분한 '책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짚고 미래를 예측하고 앞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이러한 노력을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시대에 동참하는 것이 시대에 영합하거나 왜곡된 조류에 편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서관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조절하고 바른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도서관의 기본인 장서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꾸준한 연구,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 활동의 핵심을 열람실이라고 하는 시설에서 장서와 서비스로 과감하게 이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도서관에 가면 볼 것이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장성희 기자가 2000.2.26. 게재한 기사

의 제목이 “도서관에 갔다오면 부자가 된다”였다. 미국 도서관들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풍부한 콘텐츠(책, 비디오, CD 등)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자기 도서관에 없는 것은 다른 도서관에서 가져다 빌려주는 미국 도서관들의 서비스로 이러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크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서관 장서를 크게 늘려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인 재정과 전문인력 등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과 달리 현실은 늘 부족하고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여지는 적지 않다. 장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장서구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를 장서 확충에 사용하고 도서관 전문인력들이 비로소 전문적 일, 즉 정보서비스 등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도서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든 점에서 우리 도서관들도 즉각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서관과 도서관인 자신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이 이러한 시민들의 지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콘텐츠를 확충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의 문제점을 스스로 부각시키고 적은 예산이라도 좋은 콘텐츠 확충에 노력하고 부족한 전문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에 집중시켜야 한다.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나 자발적 실천 또한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사는 경우 수동적으로 베스트셀러나 신문 등의 서평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도서관 사서들끼리 좋은 책을 도서관에 소장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사서들이 자관의 필요성에 맞는 책을 고르는 일련의 노력을 공개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서들이 서평자로, 초록자로 나서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수 천명의 사서들의 힘은 도서관 장서에 큰 변화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부족한 예산으로 도서관 콘텐츠를 충실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특색있는 장서구성 노력도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의 간행물, 정부간행물 등의 비매 자료의 확보도 가능하다. 물론 일부 외국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중자료를 채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어쨌든 책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차별화하는 노력은 도서관을 새롭게 변모시킬 것이다. 전문인력의 경우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가장 유능하

## 12 2001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

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서들이 서비스의 최일선에 나서야 한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최고의 전문사서들이 서비스하는 모습을 통해 젊은 사서들이 전문사서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태도, 경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자발적 노력을 통해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함께 도서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도서관이 없는 나라, 책 없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비판적 지적에 가장 마음이 아파야 할 사람은 바로 도서관인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짧게 수 백년을 이어온 도서관의 역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회복하지 않고서야 어찌 자신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지식과 정보를 핵심적 자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나설 때 잊혀졌던 도서관의 가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이 수 십 년 우리들의 아픔과 주장을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노력할 때이다. 그 노력의 첫 번째 시도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 책의 가치를 회복하고 재정립하는데 있어 도서관 장서를 개입시키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이 살아있는 책을 통해 지혜의 등대로 되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나라 도서관이 짊어져야 할 첫 번째 과제이자 역할이다. 책을 도서관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서 그 시작을 찾았으면 한다.